

언제 어디서든 자녀와 대화하는 부모

■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는데, 유대교의 경전은 토라와 탈무드이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토라 구절은 바로 쉘마다. 탈무드에는 유대인 아이가 태어나 말을 시작할 때 부모가 가장 먼저 ‘쉘마’를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



이스라엘 길거리에서 만난 유대인 가족들이다. 그들은 길거리에서도 책을 펴 놓고 가족끼리 대화와 토론을 아주 긴 시간 동안 했다.

다. 즉 “만약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버지는 아이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쉼마를 암송하게 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유대인들은 일어나자마다 쉼마를 외우고, 기도할 때마다 쉼마를 암송하며, 자기 전에 반드시 쉼마를 외우고 잠을 잔다. 문설주에 달려 있는 메주자 안에도 이 쉼마 말씀이 들어 있고, 그들이 이마에 매고 손에 감는 테필린에도 쉼마 말씀이 들어 있다.

쉼마의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쉼마는 분명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라고 명령하고 있다. 즉 자녀를 가르치는 책임은 학교나 교사, 회당이나 랍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일차적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일은 유일신이 명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라 유대인 문화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들은 유일신이 명령한 것을 수행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육한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반복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라는 쉼마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 어디서든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공간적으로 집 안에 있거나 집 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시간적으로 일어나 있거나 누워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이 말은 ‘공간과 시간을 다해서’란 의미이고, ‘언제 어디서든’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자녀와 함께 있을 기

회를 만들어 가르치라는 뜻이다. 유대인들은 이 명령에 따라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씩 쉼마를 암송한다.

“이 말씀을 강론하라.”에서 ‘강론하라’의 원어는 ‘디베르’이다. 이것은 ‘그것들에 관해 말하라, 이야기를 나누라’는 뜻이다. 이 히브리어 동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누는 대화를 의미한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종의 무의도적 교육이다. 어쩌면 가장 가까운 번역은 ‘수다’일지도 모른다. 영어로는 ‘talk about’이다. 말 그대로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유일신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녀에게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 가르치는 방법 중 하나가 강론이고, 그것이 이야기를 나누는 하브루타이다. 유대인의 문화 전반에 하브루타가 일상화 되어 있는 것은 그들이 3300년 동안 쉼마의 방법으로 강론, 즉 이야기 나누기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해 왔기 때문이다.

하브루타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므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즉 쉼마에서의 강론하라는 의미는 결국 하브루타를 하라는 명령이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쉼마를 실천하기 위해 그 어디서든 열심히 하브루타를 하고 있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회당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아버지와 자녀가 짝을 짓거나, 어머니와 자녀가 짝을 짓거나, 친구끼리 짝을 지어 토라에 대해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깊어지면 토론이 되고, 더 격렬해지면 논쟁이 된다.

■ 자녀를 가르치는 중심은 아버지

유대인들은 흔히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라고 말한다. 그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말이



유대인 아버지들은 자녀들과 집중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이다.

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안식일 식탁 문화다.

그들이 2천 년 동안 나라 없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생활하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흔히 그것은 유대

교의 힘이고, 회당이나 랍비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면서 박해를 받아온 역사가 길다. 박해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공격 대상이 되는 건물이 회당이고,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사람이 랍비다. 그래서 회당이나 랍비 없이 살아야 했던 세월이 자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은 유지되었다. 그 비밀은 무엇인가?

나는 그 비밀이 바로 안식일 식탁이라고 본다. 안식일에 유대인은 회당에 가고, 안식일 식탁을 갖고, 그야말로 쉬지만 회당에 가지 않는 유대인들도 안식일 식탁은 지키기 때문이다. 박해로 인해 회당이 문을 닫고, 랍비가 잡혀가서 회당에 갈 수 없어도, 그들은 가정에서 안식일 식탁을 가지면서 토라를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랍비 역할을 하고 가정이 회당 역할을 한 것이다. 유대인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매주 금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은 비행기를 타고 오기도 한다. 밥상머리교육이 유대인을 지켜온 것이다. 유대인들이 흔히 하는 위의 말을 바꾸면 이렇게 된다.

“유대인이 안식일 식탁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 식탁이 유대인을 지켰다.”

유대인의 정체성의 핵심에는 이처럼 가정이 있고,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 유대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단어는 선생이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이들 마음의 기둥이 되어 준다. 아버지를 존경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된다. 평소에 아버지와 항상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서로 거리낌이 없다. 이것이 유대인 가정에 흐트러짐 없는 정연한 질서를 가져다주는 원동력이다.

유대인의 삶의 지침이 되는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치는 사람 역시 아버지다. 유대인 아버지는 항상 자녀에게 토라와 탈무드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고, 아버지 자신이 책을 읽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려 애쓴다.

유대인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우리와는 매우 다르다.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남녀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유대인 아버지들은 직장을 마치면 바로 퇴근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 또 가정에서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에 독서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따라 공부하는 흥미를 내고 습관을 들이게 한다. 유아교육기관에 맡겨진 아기를 데리러 가는 일도 부부 공동의 몫이다. 부부 중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아기를 데려오고 돌본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영원한 멘토이자 교사로 여긴다. 유대인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 모든 것을 보고 배우며 전통과 가족주의 문화 등을 계승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가족문화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본보기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